

제9기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최우수 에세이

소속: 서울시립대학교 이름: 김보애

「건설업계는 혹시 건설(酒)업계인 것은 아닐까?」

이번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첫 날부터 시작된 회식은 그 일정 뒤로 내가 얼마나 많은 술을 마시게 될지 그때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 보았던 지식(CM실무, CM의 진로) 등을 엿보고 앞으로 진로에 관해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조금이라도 지금을 회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기회라고만 생각했다. 물론 지금 돌이켜보아도 이 프로그램의 지식적 가치는 충분히 제공받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보지 못했던 기존의 나를 발견했다는 데에 나는 더 큰 가치를 느낀다. 글의 제목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건설업계가 건설업계(?)라 생각될 만큼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다는 분위기를 피력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단지 사람과 사람이 모여 거대한 일을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대화하는 방식 그리고 정보를 공유해나가고 서로를 이해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준 술에 관하여 물질적 예찬을 한다기보다는 그 기능 속에 가려진 건설업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타는 목마름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나는 학교에서 수행했던 레포트 중에 ‘프로젝트 수행시 발생하는 서로간의 입장차이에 관한 실패 사례 분석’을 주제로 현장 조사를 다닌 적이 있었다. 성공사례도 아니고 실패사례를 인터뷰하려니 발주자 측의 분이시든 시공사 측의 분이시든 쉽게 말을 열지 않으셨다. 간략하게 그 사례를 소개해보면, 발주자는 시공사를 믿고 돈을 맡기고 시공사는 그 돈을 하도업체에 바로 지불하지 않고 자금을 사용하다가 돈을 제때에 지불받지 못한 하도업체가 부도가 나고 시공사마저 부도가 나서 발주자 역시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던 사례였다.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사는 하도업체의 책임으로, 하도업체는 또 그 하도업체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시간을 소모하고 돈이 소비되는 일련의 사례들 또한 지켜보면서 서로간의 ‘배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에서 OJT 현장으로 통합사업관리본부를 다녀왔는데 이곳에선 PMIS 형식으로 공정관리, 비용관리, 현안관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워낙 관리부처가 많다보니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업체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신뢰하고 관리본부가 이를 PMIS에 입력하게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 대처하고 진행하다보니 시간이 지체되고 신뢰도에도 타격을 받게되어 조금씩은 감정까지도 상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나는 여기서 건설업계의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지금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거대한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의 슬픔이 당장 내 슬픔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하고 주의를 주는 태세가 되기보다는 유연하게 그 슬픔을 들어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어떤 주체라도 낙오되지 않게 함께 항해를 즐겨나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기쁠 때에는 기뻐서 술을 마시고 슬플 때에는 슬퍼서 술을 마신다. 건설업계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쁠 때나 혹은 슬퍼지려고 할 때 발주자,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모두 모여 정답게 술(酒)을 마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 건설(建設)업계가 진정한 기술을 가진 건설(建術)업계로 거듭나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 기술을 익히려고 아카데미 기간 동안 그 많은 술(酒)을 마셨나보다.